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적의 조절효과로-

최주철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Effects of Employment Competence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Nationality

Ju-Choel Choi
Dept. of Business Incubator Kyung Hee University

요 약 최근 각 대학교에서는 극심한 취업난 해소를 위해 학문 간 융합 교육을 통한 취업과 창업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적 조절 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취업역량이 취업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역량만으로는 창업 의지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적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지가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에 효과적인 융합기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보다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융합, 취업역량,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국적

Abstract Recently universities provide the students with the convergence education as a means of start-up support for addressing the youth unemployment crisi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moderating effects of nationality in terms of the effects of employment capability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r evaluating the effec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mployment capability significantly affects entrepreneurship. Second, employment capability does not have a direct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but it h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entrepreneurship. Finally the moderating effect of nationality was revealed. We hope that the results are applied as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of convergence technology to promote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Key Words : Convergence, Employment Capability,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s, Nationality

1. 서론

최근 정부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정책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진출 가속화로 인하여 OECD 국가 중 최고의 실업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2.7%로 전체 연령층의 체감실업률 11.1%의 두 배 수

*Corresponding Author : Ju-Choel Choi (choijc@khu.ac.kr)

Received March 6, 2018

Accepted April 20, 2018

Revised April 8, 2018

Published April 28, 2018

준을 보이고 있다[1].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취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취업문제 해결 방안으로 각 대학교에서는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적인 단일 학문에서 탈피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제 간 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예로서 성균관대학교는 소프트웨어 교육 수요에 발맞춰 융합인력 양성을 위해 모든 신입생에게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서강대학교에서는 디지털 인문학과 빅데이터 과학을 결합하는 소프트웨어융합과정과 인문학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인문-엔터테인먼트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학들의 교육 방향은 융합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융합은 농림·수산 등 기존 전통산업을 새롭게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문화·예술, 건강, 복지 친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2]. 또한 대학에서는 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를 통하여 수준별, 단계별로 정규 창업 강좌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기르고 창업문화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3]. 대학생들도 기존의 취업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으로 진로선택 보다는 기업이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과 교육자들이 요구하는 목적에 일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창업교육에 관한 이론적인 토대가 미흡하며[4], 취업교육의 효과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도 부족하다[5].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가정신의 매개 효과와 국적 조절 효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 취업역량과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연구방법과 가설을 정의하고 4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으로 구성한다.

2. 문헌 연구

2.1 취업 역량

취업역량 또는 구직역량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직무 현장에서 효과적이면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6]. 취업역량은 대

학생들의 진로개발과 관련된 개념으로 고용 가능성, 직업기초능력 등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적, 민족적으로 여러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능력이다. 취업역량과 연관된 개념 및 능력으로는 개인의 진로개발과 연관된 개념들과 직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과 취업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구직역량이란 구직희망자들이 직장을 성공적으로 구하고 적응을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기존 연구에서는 구직 지식군, 구직 기술군, 구직 태도군, 직무 적응군으로 정의하고 있다[7].

2.2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취업·창업 연구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연구되는 주제 중의 하나다. 기업가정신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품이나 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했다[8].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기업 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이 더욱 중요하다[9]. 또한, 기업가정신을 현재 주어진 자원에 제약을 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며, 균형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와 추론 및 행동 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3가지 모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으로 구분하였다[8,10]. 첫째, 혁신성은 현재 창업가 정신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바꾸는 동적 과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자세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진취성은 미래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가진 낙관적인 사고 성향을 말한다[11]. 또한, 진취성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방법과 의지로 난관을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정신이다. 셋째, 위험 감수성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측되더라도 위험을 감내하고 도전하려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하였다 [12].

2.3 창업의지

창업 의지는 취업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창업에 관한 개인의 관심을 행동으로 표출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상태이다. 창업은 자연 발생적 현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13]. 창업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한 개인의

역량이기에 창업의지가 없으면 새로운 기업 설립은 있을 수도 없으며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없다[13].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 지원, 환경적인 지원,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적 지원 등이 창업 의지와 창업 행동에 높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4]. 즉 대학의 창업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국가와 사회 네트워크 제공 등이 잘 구축되었을 때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를 기업가로서 성공할 확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 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여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과 창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국적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추론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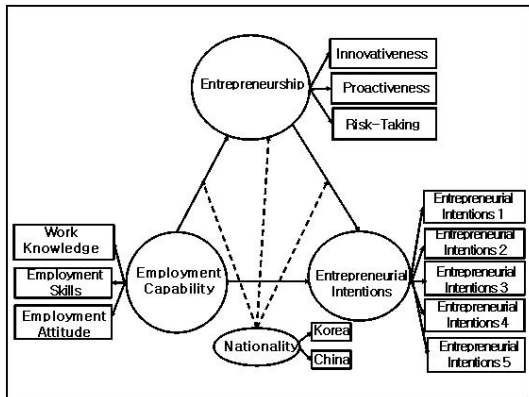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 설정

3.2.1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는 조직원은 기업 내 조직의 변화와 혁신과정에 영향을 주고 기업성공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기업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15]. 직업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역량에는 개인의 태도, 성향, 성격 그리고 경험과 지식, 기술과 능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16]. 즉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취업역량은 기업가정신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취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욕구 속에는 새롭게 조직을 창조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17]. 이는 취업가능성 즉 취업역량이 높은 대학생 일수록 창업에 의지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2. 취업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개인 특성 관점에서 기업이 역량은 특정 직무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 된다[18]. 청년 기업가정신과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연구에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분류하고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19].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취업가능성은 취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가로 진로를 선택 하는 경우에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였다[20]. 그리고 기업가적 자아는 실제로 기업가가 되거나 취업 가능성을 가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한다[21]. 선행 연구를 통해 기업가 정신은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기업가정신은 취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5 국적의 조절효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각 대학에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중국 대학생들은 근본적으로 기업가정신이 높다는 민족

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 대학생들은 높은 실업률과 대학 졸업 이후 생활을 위한 기본 대책과 진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22]. 국가 간 영향력 차이에서는 직무 프로세스인 피드백 추구 행동과, 역할 내 행동 경로에서 국가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국적에 따라 취업역량과 기업가정신, 취업역량과 창업의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측정 도구들을 활용하되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설문지는 취업역량, 창업 의지, 기업가정신 등 3개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총 3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업가정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기회를 탐색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 진취적, 위험 감수적인 정신과 태도라고 정의하고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3개의 하위변수마다 각 4개 문항, 총 1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를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18]. 취업역량은 예비 직장인으로서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어가는 제반 활동이라 정의하고 취업 지식, 취업기술, 취업태도 등 3개의 하위변수마다 각각 5 문항, 5문항, 4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를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23]. 창업 의지는 단일요인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업을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직의 리더를 추구하는 자세라고 정의하고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를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24,25]. 설문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문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Variable Manipulation and Measurement Tools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Measuring Questions	Precedent Research
Employment capability	Job knowledge	① Building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Majoring Field	J. S. Go, G. N. Lee, S. N. Kim & J. H. Byun. (2010).
		② Acquiring the Foreign Language Skill Related to the Employment	
		③ Understanding the Industry and Work Type in the Field of Employment	
		④ Equipping General Knowledge Related to Employment	
		⑤ Understanding the Skills and Aptitude for Work	
	Employment skills	① Establishing Employment Goals and Exploring the Alternatives	
		② Expressing one's Opinions Clearly in the Employment Process	
		③ Creating the Document or Filling out Forms for Employment	
		④ Exploring, Evaluating, and Utilizing the Information About Jobs and Employment	
		⑤ Securing the Human Network Necessary for Employment	
	Employment attitude	① Assessing the Given Situations in a Positive Manner	
		② Proactively Coping with Problems When They Arise	
③ Ethics and Attitude as a Would-be Employee			
④ Understanding the Global Trend or Change in the Field of Employment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① Exploring Creative Ideas	J. Frishammar & S. A. Horte. (2005).
		② Seeking Unique and Innovative Ideas	
		③ Taking Interests in New Technology and New Products	
		④ Being Oriented Toward Creative and Innovative Thinking Style	
	Proactiveness	① Pursuing New Things rather than Old Things	
		② No Need for Tradition or Old Customs	
		③ Progressive and Innovative	
		④ Active in Exploring New Opportunities and Changing	
	Risk-Taking	① Taking Risks in Things that Must be Done	
		② Bold decision-making even under uncertain situations	
③ Actively Seeking Ways to Overcome Risks When Risks are Detected			
④ Possessing an assertive attitude for exploring opportunity			
Entrepreneurial Intentions	Single Factor	① Excited Feelings about Start-Up	N. F. Krueger & D. V. Brazeal. (1994)K. An. (2016).
		② Entrepreneurial Enthusiasm	
		③ Start-up is Attractive enough to Take Risks	
		④ Will Successful Entrepreneurship	
		⑤ Pursuing the Leader of the Organization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4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10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423부 가운데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지 15부를 제외하고 총 408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연구변수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자료를 수집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통계(Descriptive) 분석을 통해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둘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통해 연구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연구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요인추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FA)은 주성분분석과 직교 3회전 방법(Varimax Method)을 활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CFA)에서는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개념 신뢰도(C.R.) 값을 구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절대 적합지수와 증분 적합지수를 도출하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구축하여 AMOS 통계패키지를 통해 3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최대우도법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고 부트스트래핑은 500회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적이 따라 변수 간의 영향관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가설의 채택과 기각은 유의수준 $p < 0.05$ 에서 판단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본 연구표본의 국적은 한국이 279명(68.4%)이며 중국이 124명(30.4%), 기타 5명(1.2%)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성별은 남성이 224명(54.93%), 여성이 184명(45.1%)으로 조사되었다. 학년은, 4학년이 178명(43.6%)으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이 131명(32.1%), 2학년이 51명(12.5%), 1학년이 48명(11.8%)로 나타났다. 학과가 소속된 계열은, 상경계열이 200명(49.0%)으로 매우 높았고, 인문사회계열이 83명(20.3%), 공학계열이 46명(11.3%), 예체능계열이 43

명(10.5%), 기타 36명(8.8%)로 나타났다. 과거 창업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272명(66.7%)로 창업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학생 136명(33.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4차산업 관련 교육을 받아본 학생은 213명(52.2%)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학생 195명(47.8%)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매개변수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의 평균이 3.563으로 가장 높고, 매개변수인 기업가정신의 평균은 3.492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Division	Minimum	Maximum	Mean	Std
Employment capability	1.07	5.00	3.500	0.603
Entrepreneurship	1.00	5.00	3.492	0.548
Entrepreneurial Intentions	1.00	5.00	3.563	0.860

4.2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4.2.1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로 활용되고 있는 연구변수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역량 14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 같이 각각 취업지식, 취업기술, 취업태도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별 고유값과 분산값을 살펴보면, 취업기술은 3.654와 26.101, 취업지식은 2.691과 19.224, 취업태도는 2.499와 17.848로 각각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63.173%를 보여 주었다. Cronbach's α 에 의한 신뢰성 분석결과, 취업기술은 0.847, 취업지식은 0.821, 취업태도는 0.79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변수의 수와 Case 수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KMO 측도는 0.912로 0.7 이상으로 나타났고,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나($\chi^2=2788.490$, $p < 0.001$)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기업가정신 12개 문항에 대한 결과는 진취성4 문항이 탈락하고 나머지 11개 문항은 선행연구와 같이 각각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신뢰성 분석결과 혁신성은 0.852, 위험감수성은 0.735, 진취성은 0.60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KMO 측도는 0.855로 0.7이상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나($\chi^2=1506.789$, $p<0.001$)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창업의지 5개 문항에 대한 결과는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탈락한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값과 분산값은 각각 3.363, 67.267로 나타났고, 신뢰성 분석 결과도 0.876으로서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KMO 측도는 0.798로 0.7이상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나($\chi^2=1210.510$, $p<0.001$),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4.2.2 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과 구성개념타당성 검정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에 이어 최대 우도법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본 구성개념의 집중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ults of Convergent Validity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Factor Loading	Estimate of Error Variance	AVE	Construct Reliability
Employment capability	Employment attitude	1			0.799	0.202	0.788	0.918
	Work Knowledge	0.942	0.062	15.24	0.754	0.145		
	Employment skills	1.091	0.066	16.626	0.843	0.169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1			0.76	0.23	0.599	0.815
	Risk-Taking	0.736	0.067	10.989	0.638	0.248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ial Intentions 1	1			0.908	0.193	0.567	0.863
	Entrepreneurial Intentions 2	1.006	0.035	28.398	0.93	0.144		
	Entrepreneurial Intentions 3	0.765	0.048	15.955	0.668	0.658		
	Entrepreneurial Intentions 4	0.81	0.046	17.504	0.71	0.588		
	Entrepreneurial Intentions 5	0.58	0.047	12.433	0.559	0.674		

집중타당성 검정결과, 취업역량, 기업가정신, 창업역량의 구성개념은 모두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AVE)과 개념신뢰도의 경우 취업역량은 0.788와 0.918, 기업가정신은 0.599와 0.815, 창업의지는 0.567과 0.863으로 각각 나타나 모두 검정기준을 충족하였다. 판별타당성 검정결과, Table 4와 같이 각 구성개념의 AVE 제공근이 각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 또한 충족되었다.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Test Result

Division	Employment capability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AVE
Employment capability	<i>0.888</i>			0.788
Entrepreneurship	0.549	<i>0.774</i>		0.599
Entrepreneurial Intentions	0.426	0.499	<i>0.753</i>	0.567

Italic is the square root of AVE

4.2.3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및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연구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창업역량, 기업가정신, 취업역량 간 상관관계는 모두 연구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며,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상관계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취업역량과 기업가정신간의 관계가 0.549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역량과 창업역량 간의 관계가 0.426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Result

Division	Employment Capability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s
Employment Capability	1		
Entrepreneurship	0.549**	1	
Entrepreneurial Intentions	0.426**	0.499**	1

** =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 =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Table 6과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가 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모형은 χ^2 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6. Research Model Tolerance Graph Result

Goodness of Fit Index		Criterion	Scale Value	Test
Absolute Viscosity Index	CMIN (d.f., p)	p>.05	236.316 (41, p=.000)	Reject
	RMR	.05 or less	0.053	Accept
	GFI	.9 or more	0.905	Accept
	AGFI	.9 or more	0.848	Accept
	RMSEA	.1or less usually .08or less good .05or less excellent	0.108	Accept
Incremental Fit Index	NFI	.9 or more	0.899	Accept
	IFI	.9 or more	0.915	Accept
	TLI	.9 or more	0.885	Accept
	CFI	.9 or more	0.914	Accept

4.3 가설검정

4.3.1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H1, H2)

본 연구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이 취업역량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0.729, C.R.값 10.919으로서 유의수준 p<0.01에서 취업역량은 기업가정신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15].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0.048, C.R.값 -0.8로 유의수준 p<0.05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취업역량과 창업의지가 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취업역량과 창업의지가 부(-)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17].

Table 7. Influence of Employment Capacity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Division	Path	Direction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Test
H1	Employment Capability→Entrepreneurship	+	0.729	0.067	10.919	***	Accept
H2	Employment Capability→Entrepreneurial Intentions	-	-0.048	0.161	-0.3	0.764	Reject

*** =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 =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4.3.2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H3)

본 연구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고 있다.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1.127, C.R.값 6.098로서 유의수준 p<0.01에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19].

Table 8.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Division	Path	Direction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Test
H3	Entrepreneurship→Entrepreneurial Intentions	+	1.127	0.185	6.098	***	Accept

*** =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 =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4.3.3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H4)

본 연구는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이 취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가설 4를 지지하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부분 및 완전매개여부를 판단하였다.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취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취업역량과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기업가정신이 취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성도 0.003으로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역량만으로는 창업의지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기업가정신의 매개에 의해서만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7,20].

Table 9. Indirect effect of entrepreneurship Significance test result

Division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Judgment	Indirect Effect Valence	Test
H4	Employment capability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s	-0.028	0.712-0.663 = 0.472	0.444	Complete Mediation	0.003***	Accept

*** =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 =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4.3.4 국적의 조절효과(H5)

본 연구는 Table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에 따라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5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가설 5를 검증한 결과,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경우, 한국과 중국 모두 경로계수 0.716과 0.744, C.R.값 8.621과 6.323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였다. 취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경우, 한국과 중국 모두 경로계수 -0.019와 -0.043, C.R.값 -0.104와 -0.151로 나타나 유의수준 $p < 0.05$ 에서 기각되었다.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경우, 한국과 중국 모두 경로계수 1.08과 1.151, C.R.값 5.062와 3.726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였다.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학생들(C.R.값= 8.621)이 중국 학생들(C.R.값= 6.323)보다 높았으며,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서도 한국 학생들(C.R.값= 5.062)이 중국 학생들(C.R.값= 3.726)보다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국적에 따라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국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선행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22].

Table 10. Moderating Effect of Nationality

Division	Path	Nationality	Direction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Test
H5	Employment capability → Entrepreneurship	Korea	+	0.716	0.083	8.621	***	Accept
		China	+	0.744	0.118	6.323	***	Accept
	Employment capability → Entrepreneurial Intentions	Korea	+	-0.019	0.185	-0.104	0.917	Reject
		China	+	-0.043	0.283	-0.151	0.88	Reject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ial Intentions	Korea	+	1.08	0.213	5.062	***	Accept
		China	+	1.151	0.309	3.726	***	Accept

*** =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 =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간 영향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고자 Table 11과 같이 다중집단 분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비 제약 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차이가 비유의하게 나타나 다음 단계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1. Measurement Invariance Test

Model	χ^2	df	GFI	TLI	CFI	RMSEA	$\Delta \chi^2$	Sig.
Model1 (Non-constraint)	288.998	82	0.884	0.877	0.908	0.079		
Model2 (λ Constraint)	297.49	90	0.881	0.888	0.908	0.076	$\Delta \chi^2(8) = 8.492$ (model2-model1)	Non-Significant
Model3 (\varnothing Constraint)	300.535	96	0.879	0.886	0.909	0.073	$\Delta \chi^2(14) = 11.537$ (model3-model1)	Non-Significant
Model4 (λ, \varnothing Constraint)	318.494	107	0.875	0.904	0.906	0.07	$\Delta \chi^2(25) = 29.496$ (model4-model1)	Non-Significant
Model5 ($\lambda, \varnothing, \theta$ Constraint)	2364.98	110	0.358	0	0	0.226	$\Delta \chi^2(28) = 75.982$ (model5-model1)	Non-Significant

국적에 따라 발생하는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Table 12와 같이 다중집단 분석에 의해 구조방정식을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취업역량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t-값 0.195 이상으로 나타나 국적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는 t-값 0.189로 나타나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2. Statistical Significance of Path Coefficients According to Nationality

		Korea		
		1	2	3
China	Employment capability → Entrepreneurship	0.195	3.484	-1.378
	Employment capability → Entrepreneurial Intentions	-2.576	-0.069	-3.17
	Employment capability → Entrepreneurial Intentions	1.36	3.251	0.189

5. 결론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 간의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융합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융합을 통한 가치의 창출은 심각한 취업난에 처한 대학생들에게 인문·사회·공학·문화·예술 등 다양한 학제의 융합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대학들은 융합 교육을 통한 취업 및 창업역량을 기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역량은 기업가정신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역량과 창업역량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업에서 조직을 관리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대학생 창업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취업역량만으로는 창업 의지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기업가정신의 매개에 의해서만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국적에 따라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로 취업환경이 다르고 창업 지원 제도와 교육정책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역량이 기업가 정신과 창업 의지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취업교육에 기업가 정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대학생 국적에 따라 취업역량이 기업가정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국적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우수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수도권에 소재한 하나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대학생들의 국적 비교는 한국 학생과 중국 유학생 두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목적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졸업생의 특성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취업 또는 창업한 실제 성공사례를 반영한다면 우수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FERENCES

- [1] J. P. Hong J. B. Oh. (2018) *Fiv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Economic Activity*, 7, Seoul : Hyundai Research Institute.
- [2] G. S. Ryu. (2015). Development of Educational Model for ICT-based Convergence Exper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6), 75-80.
- [3] I. C. Yoon. (2017). Effect on startup mentoring, education satisfaction, and startup inten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265-273.
- [4] B. S. Yoon. (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05.
- [5] P. A. Creed, T. D Bloxsome & K. Johnston. (2001).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utcomes for unemployed individuals attending occupational skills training programs". *Community, Work & Family*, 4(3), 285-303.
- [6] A. D. Lucia & R. Lepsinger. (1999). *The Art and Science of Competency Models: Pinpointing Critical Success Factors in Organizations*. Pfeiffer; 1 edition. 224.
- [7] J. S. Go, G. N. Lee, S. N. Kim & J. H. Byun. (2010). A Study on Defining the Concept and Estimating the Weight of Employment Competency for the Yout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2), 17-42.
- [8] D. Miller,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9] I. S. kim, K. S. Yoo & Y. D. Kim.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Activities of Venture Enterprises on the Increase Firms' Revenu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29-341.
- [10] H. H. Stevenson. (1983).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9-384-131*, Boston : Harvard Business School,
- [11] C. C. Manz.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 [12] H. C. Koh. (1996). Testing Hypothese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 Study of Hong Kong MBA Student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1(3), 12-25.
- [13] N. F. Krueger, M. Reilly & A. Carsrud.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 - 432.
- [14] D. Turker & S. Selcuk. (2009). Which Factor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3(2), 142-159.
- [15] D. H. Lee & C. H. Jin. (2016). The Effect of Innovativeness Managerial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Korea.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23(3), 127-149.
- [16] R. Stuart & P. Lindsay. (1997). Beyond the Frame of Management Competenc(D)Es: Towards a Contextually Embedded Framework of Managerial Competence in Organization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1(1), 26-33.
- [17] B. Costea, K. Amiridis, & N. Crump (2012). Graduate Employability and the Principle Of Potentiality: An Aspect of the Ethics of HRM.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1(1), 25-36.
- [18] K. C. Yoon & Y. R. Kim. (2009). A Study on the Business Performance and Degree of Globalization of Korean Venture Enterprise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20(2), 29-63.
- [19] A. Lim, H. C. Kim & J. R. Youn. (2014)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Behavior",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9(3), 80-103.
- [20] H. B. Pickle & R. L. Abrahamson. (1990). *Small Business Management. 5th edi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 [21] K. Berglund. (2013). Fighting Against All Odd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Employability Training. *Ephemera*, 13(4), 717-735.
- [22] J. H. Yang & Z. Xi.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Mediating of Self-efficac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9(4), 25-53.
- [23] J. Frishammar & S. A. Horte. (2005, June). The Role of Market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for NPD Performance in Manufacturing Firms1. *Short Version Presented at the 12th International Product Development Management Conference*. : Copenhagen.
- [24] N. F. Krueger & D. V. Brazeal. (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91.
- [25] S. K. An. (2016).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Ph.D.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최 주 철(Choi, Ju Choel)

[정회원]



- 1988년 2월 :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공학사)
- 2005년 8월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9년 2월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부교수
- 관심분야 : 추천시스템, 데이터마이닝, 창업
- E-Mail : choijc@khu.ac.kr